

불교 지금 서구에선...

“神 없는 신앙 실재 찾자” 열풍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2년

“문명은 그 기반으로 삼고 있는 종교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을 견지해온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1889~1975)는 그의 말년에 문명과 종교에 관한 매우 의미있는 발언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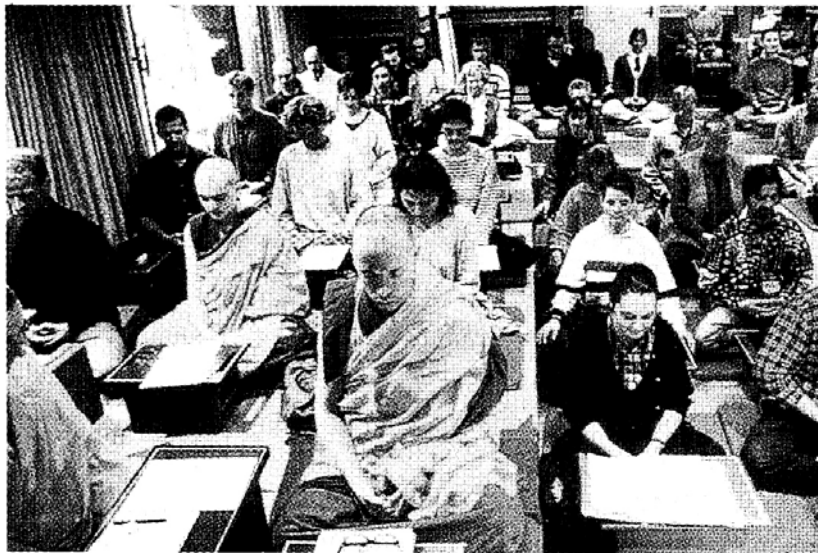
“현대인이 가져야 하는 종교는 법(法)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이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는 유대교의 일신교이고, 탈그리스도교적인 무신론에 선 과학적 진보에 대한 신앙이다...야채같은 유일신보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생명의 법체계 쪽이 ‘궁극의 정신적 실재’를 보다 그리스침이 없이 나타내고 있다.” (2세기와 대화) ‘종교의 역할’ (일조각, 1986)

‘타임’ 지 불교관련 표지

토인비의 종교 때문이었을까. 지난해 10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미국의 불교에 대한 관심(America's Fascination with Buddhism)’이란 기사를 커버스토리로 장식했다. 불교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함께 유명 연예인 및 체육인들의 불교에로의 개종과 불교에 대한 관심을 소개했다.

이들 두고 조성택교수(뉴욕주립대)는 “미국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미국 주류사회의 큰 흐름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음을 말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불교인구는 2백만명, 불교센터 및 사원의 수는 1천62개로 추정하고 있다(미국불교협회). 1백50여년 전 아시아 이민과 함께 상륙한 불교가



동양사상으로 접근하고 이론적으로 해명해냈다. 카프라의 사상은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입각한 기계론, 결정론, 환원주의적인 패러다임으로부터 유기체적, 시스템적, 전체론적,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탁월한 지혜)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 (생명의 그물) 등 카프라의 저서는 미국 및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전세계의 과학계와

는 불교’가 큰 흐름을 이끌고 있다. ‘부다즘(Buddhism)’으로 검색되는 사이트만도 2만7천여개에 이른다. 물론 정보제공보다는 단순한 단체 소개에 한정하는 곳도 있지만, 말 그대로 키워드, 시스템적, 전체론적,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탁월한 지혜)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 (생명의 그물) 등 카프라의 저서는 미국 및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전세계의 과학계와

놓여 있는 이들이 모두 불교인이다. 60년대 미국의 선센터 20여개 가운데 대부분이 일본불교였다. 스즈키 다이세츠에 의한 선열풍이었다. 지금도 일본 선이 미국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달라이 리마로 대표되는 티벳불교가 최근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대학은 3천여곳인데, 티벳불교를 배운 사람들이 교수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90년대 이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참여불교(Engaged Buddhism)의 중



◇프리츠프 카프라



◇디팩 초프라

하다. 이 운동을 전통적인 개념의 종교로서보다는 정신치료 또는 인간 잠재력 개발로 보기도 한다.

유럽도시마다 불교단체

현충기념에 의하면, 미국의 불교는 이민자들에 의한 ‘보파리 불교’에서 한국의 승산스님,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츠로 대표되는 포교 차원의 ‘수출불교’를 거쳐 미국인들 스스로가 한국 인도 일본 등을 찾아 불교를 배우러 가는 ‘수입불교’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이미 독특한 ‘그들의 불교’를 뿌리내렸다.

유럽에서는 학문적 대상으로 불교가 연구되다가 19세기 말에 이르러 종교로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 독일의 사상이 소련하우어를 비롯한 몇몇 사상가들은 이미 불교사상의 진가를 인식하고 있었다. 베를린 합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도시마다 불교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국은 1924년 유럽 최초의 불교단체인 불교협회(The Buddhist Society)를

서구속의 한국불교



◇승산스님



◇삼우스님



◇도인스님

현재 전세계로 진출해 있는 한국사찰은 2백10여개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미국 1백45, 일본 10, 독일, 캐나다, 아르헨티나 각각 3곳 등 15개 나라에 분포하고 있다.

승산스님은 1972년 미국 프라비덴스 선원을 설립한 것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 50여곳의 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마음선원도 미국과 아르헨티나 독일 등에 11개 선원을 설립,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LA 관음사(주지 도인)는 교포사회의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 진출 한국사찰의 숫자는 적은 것은

15개국에 210여 사찰 진출 교포사회 구심점 역할

현지인 포교는 초기단계

아니지만, 대부분 교포 대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어 현지인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는 아직 초기단계라는 지적이다.

로버트 버스웰교수(캘리포니아주립대학 한국학연구소장)는 “미국에서의 한국불교는 교민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 인과의 교류는 제한적이다”며 미국 본토 문화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한 토착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버스웰교수는 승산스님의 사례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다. “승산스님은 미국인 학생들을 포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거기서 뿌리를 내린 후에 한국 이민사회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한 포교방식이 양쪽 사회의 이질감을 줄이고 미국에서의 포교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1967년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선 수행도량 선련사를 세워 한국 불교를 전파하고 있는 삼우스님은 “기초불교는 서구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며 “이들은 스스로 불교의 사상과 정신을 공부하고, 참선을 통해 자아를 체득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한다.

이와 함께 지식인·상류층 중심에서 중·하층민 포교를 통한 대중화도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교관련 출판·영화 인터넷 ‘급증세’ 카프라, 동양사상 접근 ‘신과학’ 창출

심에는 인터넷과 평화의 이미지를 획득한 달라이 리마가 있다.

틱 낙한도 미국불교의 중심이다. 그의 책 <살아있는 붓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미국인의 의식을 흔들고 있다.

여기에 ‘서구에서 서구어로’ 불교 전파인 웨스턴부다즘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세계에 160개 지부를 두고 각종 예술활동을 펼치며 서구인들에게 불교를 전하는 ‘서방불교의 친구들(Friends of Western Buddhist Order)’의 활동이 최근의 두드러진 움직임이다. 이 모임은 영국인 상카라시타가 지도하고 있다.

서양의 신비주의적 전통과 동양적 사고가 혼합된 뉴에이지 신앙운동도 미국불교의 한 유형이다. 뉴에이지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방식은 명상법(meditation)이 중심이다. 70년대 황성화되었다가 이후 침체기를 거쳐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신앙운동이 활발

비롯 티벳불교명상센터, 런던불교센터, 중관불교센터 등 중심으로 불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많게는 1백60개까지의 지부를 영국 내 또는 해외에 설치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책상다리를 하고 새벽 좌선을 하는 광경은 더 이상 신기한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다. 프랑스 불교 신자연합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도수는 60만명으로 94년 수만명에서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언론은 불교의 확산을 “20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에 가장 놀랄만한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서구에서 불교와 선은 ‘새로운 자유 정신’ ‘무한한 내적 자유의 추구’ 등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불린다. 저만치 떨어져 있는 연구 대상의 불교에서, 그리고 문화와 철학으로서의 검증 거쳐 이제 그들은 삶의 지표와 ‘탁월한 지혜’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다.

美 불자 2백만명...불교센터 등 1천여곳 유럽 불교확산 “20세기 놀랄만한 현상”

이제 미국 주류사회의 새로운 종교·사상적 흐름을 형성하면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앞으로는 불교인의 숫자에서는 물론이고 불교학 연구의 중심지로서의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인도에서 발생, 아시아를 중심으로 퍼지며 각국의 전통과 상호교감하면서 불교문화가 꽃피었던 ‘미국 불교’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이다.

그런 징후는 출판, 영화, 인터넷 사이트 등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불교 책 한두 권은 꼭 들어 있다. 지난해 가을 베트남 출신의 틱낙한 스님의 <살아있는 붓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판매부수 1백만권을 돌파해 밀리언셀러로 기록됐다. 출판 분야에서 카프라와 초프라를 빼놓을 수 없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물리학자로 ‘신과학’의 대표적 인물인 프리츠프 카프라.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으로 대표되는 현대물리학을 불교, 도교, 힌두교

사상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신과학 운동, 신생활 운동 등을 촉발하게 하였다.

인도 태생의 의학박사 디팩 초프라는 미국 터프스대의 보스턴의대 교수로 지낸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대체의학’의 권위자. 1백60만부 이상 팔린 그의 저서 <성공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 7가지>는 불교의 신과 공자, 노자사상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길이 인간의 본성과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잠재력을 깨닫고 자연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지난해 펴낸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7가지 정신적 법칙> 역시 이같은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더 앞서는 20세기 서구 사상가들에게 ‘이성 중심의 서구문명의 대안으로 불교정신’을 알린 헤르만 헤세, 보르헤스, 욕타비오 파스, 토마스 머튼 등 작가와 사상가들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90년대 들어서는 ‘인터넷으로 만

나서 불교’가 큰 흐름을 이끌고 있다. ‘부다즘(Buddhism)’으로 검색되는 사이트만도 2만7천여개에 이른다. 물론 정보제공보다는 단순한 단체 소개에 한정하는 곳도 있지만, 말 그대로 키워드, 시스템적, 전체론적,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탁월한 지혜)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 (생명의 그물) 등 카프라의 저서는 미국 및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전세계의 과학계와

할리우드의 불자 스타들

왜 할리우드에서 불교영화인가. ‘쿤둔’의 감독 스톤세지는 말한다. “불질을 넘어선 정신의 세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이 항상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이같은 이유로 그들은 불교에 다가오고 있다.

리처드 기어는 할리우드의 수도승으로 불린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불교야말로 최고의 종교”라고 말한다. 장 끌로드 반담, 키아누 리브스, 조디 포스터, 산드라 블록, 수잔 서렌슨... 미국 프로농구팀 시카고 불스의 코치 필 잭슨, 영화 ‘배어’의 감독 베르톨루치. 항상 대중적 관심의 중심에

Advertisement for '9시 뉴스' (9 o'clock news) featuring a silhouette of a person and text: '9시 뉴스'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밤정스님이 추천한 책! 밤간족시 4쇄 돌임. 밤정스님이 추천한 책! 경허스님이 깨달음의 노래를 부르던 눈 속의 천장암. 성철스님의 '삼천배'가 화두로 전해지는 백련암. 평들이 마중하는 법정스님의 불일암. 한강의 발원지에 너와짐으로 선 오대산 염불암. 산빛꽃이 만개한 설악산 오세암... 그 물 흐르고 꽃 피는 청산으로 가고 싶다. 작가 정천주가 (중일일보) 1년간 연재한 정선문화 성지순례 수필집. 미음이 허허로운 이들을 보듬어주는 어머니 같은 곳. 청산에 인계 있는 암자들이 손에 짚힐 듯이 눈앞에 펼쳐진다. 정천주 지음 김명희 서진/울림각리 고림 발행/값 9,500원 *책속에 암자암사가 들어있습니다. 암자로 가는 길

Advertisement for '장가 안가길 잘했네' (I did well not going to my in-laws).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인-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삼천배 삼천부 적님(신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새본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불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재미있는 금강경산책(상·하) 불교 EQ 100 불교 만지 시키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사경문, 중도가 의 다수

Advertisement for '명리서의 백미, 命學之書의 교과서 滴天髓闡微'. <滴天髓>는 치밀하고 정확한 이론과 사리에 부합되는 명리서의 백미이며 命學之書의 교과서. 芮光海 譯. <494쪽/값 20,000원>. 통신판매: 조흥은행: 436-04-054683, 국민은행: 833-24-0147-067, 서울은행: 39807-0602412, 축협: 047-11-12095-316 (예금주: 서찬배). 도서指南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6-4(3층) TEL: 02)387-8429, 264-1757 FAX: 357-7493, 264-5139